

# 防火와 卓檢

안전점검은 꼭 필요한 것인가— 현재와 같은 방법보다 더 좋은 점검방법은 없을까? 또는 안전점검의 부작과 파는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등의 의문이 우리의 다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문을 굳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VISION 을 제시하는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근래 우리는 대규모 고층 건축물과 공장의 빈번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과 재산을 손실간이 않게 되는 경우를 여러번 경험한 바 있다.

1978년 한해 동안의 화재 결과들 우리 협회와 전국(내무부 자료)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체 화재 피해액의 23%인 1,835,613천 원이 특수 건물 피해액이었다. 이는 기금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화재 발생 건수를 비교하면 전국 4,774건, 협회 190건으로 우리 협회가 4%에 불과하였다. 또한 1976년 우리 나라의 화재피해 규모를 세계 주요 나라와 비교할 때 내무부 자료에 의하면 화재 1건당 피해액은 1,059,0천 원으로 미국, 영국보다 크고 사망자 1인당 화재건수는 25.2로 가장 낮아 화재 인명 사망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 37.8, 미국 : 334, 영국 : 554.7, 프랑스 : 535.1, 캐나다 : 81.6)

이상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해 우리나라의 화재피해 규모는 각국 국적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리 협회의 대상인 특수건물 화재가 우리나라의 화재피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나라는 진압소방보다는 예방소방이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진압소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인력 및 장비증강 등에 따른 막대한 국가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해결된다더라도 도시계획이 잘 되지 않아 도시교통이 혼잡하여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제약요소 등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진압소방이 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더우나 건축물이 커지고 고층화 갈수록 초기 소화와 안전피난이 요청된다. 즉 건축물 자체로서 방재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건물 자체의 방재설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천재, 방재설비에 대한 투자(방재투자)는 비생산적 투자가기 때문에 건물주의 자발적인 투자 의욕을 기대할 수 없어 법령으로 규제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천재 방재설비는 항상 사용하는 설비가 아니고 화재의 발생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같은 비생산적인 설비이지만 공해방지시설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항상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화재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방재설비의 효용은 제로가 되어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방재설비는 항상 사용하는 않지만 유사기 사용할 경우 반드시 완벽하게 작동해주기 않으면 안 된다. 비정상상태때문에 건물 소유주가 방재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여기에 항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유사기 완벽하게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이 방재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점검의 필요성이다.

그러므로 방재설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소방법집행 의무화 되어 있고 우리가 매일같이 실시하는 안전점검도 방재설비도 이러한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